

朝鮮醫書 『增補萬病回春』 에 대한 研究

양 영 준, 안 상 우

한국한의학연구원

Abstract

*A study of the
Jeung-Bo-Man-Byeong-Hoi-Chun
a medical book of Joseon(朝鮮)*

Yang Young Jun ◆ · Ahn Sang Woo ◆

◆Korea Institute Study Course of Oriental Medicin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Man-Byeong-Hoi-Chun(萬病回春) is a representative writing of Gong Zhongxian (龔廷賢). It was generally used by Koreans in Joseon(朝鮮) era and issued many times in the latter period of Joseon dynasty.

We investigated the Jeung-Bo-Man-Byeong-Hoi-Chun (增補萬病回春, An enlarged edition of the Man-Byeong-Hoi-Chun), which is published in the 17th century, coming to a conclusion like the followings.

1. In Joseon(朝鮮), there was the Jeung-Bo-Man-Byeong-Hoi-Chun which was made through revision and enlargement of the Man-Byeong-Hoi-Chun written by Gong Zhongxian(龔廷賢) of China.

2. There are two versions of the Jeung-Bo-Man-Byeong-Hoi-Chun pressed in

Joseon, which are written by Kim Yuk(金堉) in 1656 and by Kim Seok-ju(金錫胄) in 1679.

3. *The representative medical books of Joseon such as Eui-Rim-Chual-Yo-Sok*

-Jip (醫林撮要續集), Dong-Eui-Bo-Gam (東醫寶鑑), Je-Jung-Sin-Pyeon(濟衆新編) contained quotations from the Jeung-Bo-Man-Byeong-Hoi-Chun(增補萬病回春), not from the Man-Byeong-Hoi-Chun (萬病回春).

4. *The Jeung-Bo-Man-Byeong-Hoi-Chun(增補萬病回春) contained not only the essence of the Chinese medicine but also new medical systems reflecting actual circumstances of Joseon at that time. So, it can be recognized as the foundation of the Joseon medicine in the latter period of the dynasty.*

Keywords : Jeung-Bo-Man-Byeong-Hoi-Chun(增補萬病回春), Joseon(朝鮮), Medical books(醫書)

1. 序論

우리나라 의학의 역사는 韓國의 風土를 배경으로 韓國人의 體質에 맞게 발전되어 왔다.¹⁾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鄉藥醫學의 전통은 조선 초기에 『鄉藥集成方』의 편찬으로 완성되었는데, 『향약집성방』에서는 의도적으로 중국에서 나는 약재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약재들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노력하였다.²⁾ 그리고 세종 때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된 『醫方類聚』의 편찬으로 조선 전기까지 이어져 온 鄉藥醫學의 전통에 金元時代 醫學을 결합하여 이전까지의 經驗方 위주의 의학지식이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조선의 의학체계로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醫方類聚』가 단순히 중국의 의학서적을 베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새로운 분류체계로 재편집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³⁾ 『의방유취』가 간행된 이후에도 朝鮮의 醫家들은 지속적으로 中國醫書의 내용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였는데, 이후에 간행된 『醫林撮要』 『東醫寶鑑』 『濟衆新編』 『醫宗損益』 등에서도 비슷한 편찬경향을 보이고 있다.

『萬病回春』은 명나라 太醫를 지낸 龔廷賢(1538-1635)의 대표저작으로 조선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었던 의학서적 중의 하나이고, 조선후기에도 여러 차례 刊行되었다.⁴⁾ 필자는

1) 김남일, 우리나라 傳統醫藥技術의 中國醫學 輸入後 土着化에 대한 研究, 한국사학회지16권 1호, 2003, p.17.

2) 강연석, 『鄉藥集成方』의 본초분석을 통한 朝鮮前期 鄉藥醫學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3.

3)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2000.

4) 김두중, 『韓國醫學史』, 탐구당, 서울, 1981, p.264.

평소에 『萬病回春』과 『東醫寶鑑』과의 상관관계 및 『만병회춘』 속에 실려 있는 經驗醫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⁵⁾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만병회춘』의 처방과 치료내용에 관한 것뿐이었으며, 당시 조선에서 『만병회춘』이 어떻게 활용되었고 또 조선의 의사들이 왜 하필 龔廷賢의 『만병회춘』을 그토록 애용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다.

본인은 이러한 의문점을 밝히기 위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최근에 『承政院日記』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조선에서 『만병회춘』을 여러 차례 增補하여 刊行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의문점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즉 당시 조선에서 공정현의 『만병회춘』에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增補萬病回春』을 간행하였는데, 이 『증보만병회춘』은 현재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공정현의 『만병회춘』과는 별개의 새로운 朝鮮醫書라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편찬된 대표적인 의학서적인 『醫林撮要』 『東醫寶鑑』 『濟衆新編』 등에 인용되어 있는 『萬病回春』의 내용도 실상은 공정현의 『만병회춘』이 아니라, 조선에서 새롭게 증보하여 출현한 『증보만병회춘』을 참고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증보만병회춘』으로는 1656년에 김육이 간행한 판본과 1679년에 김석주가 간행한 판본이 있는데, 두 가지 판본이 모두 공정현의 『만병회춘』을 당시 조선의 시대적인 요구에 맞게 새롭게 증보하여 간행한 것이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 판본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이보다 더 앞선 시기에 이미 조선에서 『증보만병회춘』이 간행되었을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조선에서 『增補萬病回春』의 출현과 그 刊行과정이 갖는 醫史學的意義를 밝혀보고자 착수하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공정현의 『만병회춘』이 들어와서 조선의 실정에 맞게 새롭게 재편되어 『증보만병회춘』이 출현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까지 확인된 『증보만병회춘』의 종류와 각 판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판본에 따른 차이를 대조 분석하고, 증보과정의 내용변화를 비교해 봄으로써 조선에서 간행된 『증보만병회춘』의 추정 간행시기와 역사적 의의 등을 고찰해 보았다.

5) 양영준, 『萬病回春』이 『東醫寶鑑』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1998.

양영준·안상우, 『萬病回春』醫案속에 보이는 朝夕補法에 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18권, 2005.

6) 국보 제303호, 조선시대 인조1년(1623) 3월부터 1910년 8월까지 왕명을 담당한 기관인 承政院에서 처리한 여러가지 사건들과 취급하였던 행정사무, 의례적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한 일기. 이 책은 국가의 중대사에서부터 의례적인 일에 이르기까지 국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承政院의 전모가 기록되어 있을 만큼 방대하여, 『朝鮮王朝實錄』 편찬을 위한 첫 번째 사료로서 그 가치가 대단히 높게 평가되는 기록물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7)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萬病回春』은 네 종류가 있다. 1984년 人民衛生出版社, 1999년 龔廷賢醫學全書, 2000년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5년 中國中醫藥出版社 등에서 나온 책이다. 이 책들은 모두 공정현이 초기에 저술한 8권본의 『萬病回春』을 '底本'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 공정현의 『萬病回春』과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이름만 『增補萬病回春』으로 유통되는 서적이 있다. 1967년(중화민국56년) 大中國圖書公司, 1971년에 杏林書院, 1991년 一中社, 1993년 醫聖堂에서 나온 책이다. 출판사는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동일한 동일판본인데, 네 종류 모두 1917년 中國 上海 普通書局에서 간행된 중국판 『增補萬病回春』을 '底本'으로 하고 있다.

II. 本論

1. 『增補萬病回春』의 출현

『萬病回春』은 龔廷賢의 대표저작으로 1588년에 初版이 刊行되고, 1602년에 重刊되었다.⁸⁾ 이 책은 중국에서 현존하는 판본만도 40여 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쳤고 한국과 일본의 의학자들에게도 널리 읽힌 의서이다.⁹⁾ 『黃帝內經』을 기본으로 하여 그 이후로 張仲景과 唐宋醫家, 金元四大家 등 諸家の 學說을 두루 포함하였고, 가까이로는 王綸 虞搏 薛己 등 明나라 中期까지의 醫學을 종합 정리한 서적이다.¹⁰⁾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朝鮮에서 『萬病回春』을 刊行한 사실은 명확한 기록이 없다. 하지만 中國에서 龔廷賢의 『萬病回春』이 간행된 1588년에서 1602년 사이의 시기는 壬辰倭亂이 일어나고 명나라에서 조선에 구원병을 보내는 등의 일들로 조선과 중국 사이에 비교적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특히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조선에서는 중국으로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신들의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가 戰亂으로 인해서 朝鮮에서 없어서 버린 書籍들을 中國에서 구입해 들여오는 일이었다.¹¹⁾ 그 중에서도 전쟁 후에 질병의 창궐을 막고 조속히 민생을 안정시켜야 하는 왕실이나 사대부 관료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의학서적의 구입이나 새로운 의학서적의 편찬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명나라의 유명한 太醫 출신이었던 龔廷賢의 『萬病回春』도 다른 醫學書籍들과 함께 조선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유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龔廷賢의 『萬病回春』이 가장 먼저 인용된 서적은 『醫林撮要續集』이다. 『의림촬요속집』은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 가을에 內醫院에서 간행한 책으로 方廣의 『丹溪心法附餘』, 李梴의 『醫學入門』, 龔信的 『古今醫鑑』, 龔廷賢의 『萬病回春』 등에서 중요한 처방을 추려서 모아놓은 서적이다.¹²⁾ 따라서 1600년대를 전후해서 공정현의 『만병회춘』이 이미 조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 『全國中醫圖書聯合目錄』에 의하면 지금까지 간행된 『萬病回春』 판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明萬曆 16年(1588)에 간행된 ‘蘇州葉龍溪刻本’ 이고, 明萬曆30年(1602)에는 金陵 周氏에 의해서 重刊되었다.

9) 俞雪如, 「醫林壯元龔廷賢與日本漢方醫學」, 『상해중의약잡지』, 1991 제10기, pp.32-33.

10) 김남일 맹웅재 외, 『강좌 중국의학사』, 대성의학사, 2006, p.267.

11) 1615년에 ‘冬至兼陳奏使行’의 副使로 중국을 다녀온 許筠先生의 기행기 『乙丙朝天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세상에서 못 보던 책 얻어서 읽고 싶네, 이곳 와서 몇 만권 책을 사서 갖게 되어 …” “여 행 짐 꾸러보니 몇 천권의 책뿐이고, 후생을 교화할 것 가지고 갈 뿐이네 … 경비 다 되어 주머니 탈탈 털어 책을 샀네.” 따라서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에서는 지속적인 使行交流를 통하여 戰亂으로 소실된 서적들을 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식들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강현, 國譯 『乙丙朝天錄』, 국립중앙도서관, 2005, pp.120-125.

12) 김홍균, 「醫林撮要解題」, 『Digital 醫林撮要』, 한국한의학연구원, 2004, p.41.

필자는 최근에 『承政院日記』에 나오는 내용을 검색하다가 『萬病回春』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새롭게 增補하여 刊行한 『增補萬病回春¹³⁾』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조선의 『증보만병회춘』은 공정현의 『만병회춘』과는 내용상 많은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서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¹⁴⁾ 『承政院日記』의 효종7년 기록에는 朝鮮에서 『增補萬病回春』을 간행한 이유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영돈영부사인 金堉이 장계를 올려서 말하였다. “요즈음 內局의 醫方서적이 끊어져서 적습니다.

『萬病回春』은 議藥之時에 최고로 긴요한 醫書인데, 단지 唐本만이 있어서 상세하고 간략한 것이 不同하니 印出하여서 考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컨대 校書館에 명하여서 속히 印出하게 함이 어떨겠습니까?” 上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¹⁵⁾

위의 기록을 통해서 살펴보면 효종 때 영의정을 지낸 金堉이 당시 朝鮮에서 議藥廳이나 侍藥廳을 설치하여 질병을 상의할 때에 『만병회춘』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醫書인데도 단지 ‘中國本(唐本)’만이 있어서 상세하고 간략한 것이 같지 않아 사용하기가 불편하므로, 이것을 보완해서 朝鮮版本을 새로 印出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하고 『增補萬病回春』을 刊行하였다는 내용이다. 『승정원일기』에 나오는 위와 같은 기록은 당시 조선에서 공정현의 『만병회춘』을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였고, 또 그것을 새롭게 편집하여 朝鮮醫書 『增補萬病回春』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음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增補萬病回春』의 종류와 각 版本의 내용상의 특징에 대해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2. 『증보만병회춘』의 刊本

朝鮮에서 『萬病回春』을 增補하여 새롭게 刊行한 『增補萬病回春』은 대략 아래의 다섯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1656년 校書館筆書體(行書體) 木活字本 : 金堉¹⁶⁾의 주도로 간행됨

13)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增補萬病回春』은 네 종류가 있다. 1967년(중화민국56년) 大中國圖書公司에서 간행된 것, 1971년에 杏林書院에서 간행된 것, 1991년 一中社에서 간행된 것, 1993년 醫聖堂에서 간행된 것이다. 공정현의 『萬病回春』과 거의 동일하고 약 7가지 처방에서 약물의 효능설명이 추가되어 있다. 조선에서 나온 『增補萬病回春』과는 이름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서적이다.

14)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萬病回春』은 1984년 人民衛生出版社, 1999년 龔廷賢醫學全書, 2000년 天津科學技術出版社, 2005년 中國中醫藥出版社 등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들은 모두 공정현이 저술한 8권본의 『萬病回春』이다. 이외에 一中社, 杏林書院, 醫聖堂, 大中國圖書公司 등에서 출판한 『增補萬病回春』이 있는데 이 책들도 모두 8권본으로 공정현의 『萬病回春』과 大同小異하다.

15) 『承政院日記』 효종7년(1656) 2월 22일 “... 領敦寧金堉所啓, 卽今內局醫方絶少, 萬病回春最切於議藥之時, 只有唐本, 而詳略不同, 不可不印出, 以資考閱, 請令校書館, 從速印出, 何如? 上曰, 依爲之。”

16) 金堉(1580~1658) : 조선중기(인조·효종)의 문신, 본관이 淸風이며 호를 潛谷이라 한다. 인조반정 이후 관직에 진출하여, 백성과 나라를 위한 경세이념으로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화폐를 보급하

- ② 1669년 戊申字의 金屬活字本 : 金佐明¹⁷⁾의 주도로 간행됨
- ③ 1679년 韓構字의 金屬活字本 : 金錫胄¹⁸⁾의 주도로 간행됨
- ④ 간행년대를 알 수 없는 木版本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 ⑤ 1753년(영조29)에 영의정 金在魯가 건의하여 嶺南監營에서 開刊한 판본

이 중에서 『萬病回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새롭게 增補한 내용에 주목해 보면, ①번의 ‘金堉刊本’과 ③번의 ‘金錫胄刊本’에서 비교적 큰 내용변화가 있었다.¹⁹⁾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김육간본’을 1차 增補本으로, ‘김석주간본’을 2차 增補本으로 규정하고 이 두 가지 판본의 특징과 증보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金堉刊本

서명 / 저자	增補萬病回春 / 龔廷賢 撰
출판사항	刊寫地未詳 : 刊者(金堉) : 효종7년(1656)
형태사항	10卷 10冊 : 四周雙邊, 半郭 22.5×15.1cm. 有界 11行 1行22字, 版心:內向一葉花紋魚尾. 28.6×19.2cm.
주기사항	序: 龔廷賢自序 序: 萬曆四十三年歲次乙卯(1615) 刑部尙書 舒化
판사항	行書體木活字

‘김육간본’은 장서각에 10卷 10冊으로 소장되어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增補萬病回春』 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된 판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데, 장서각에 있는 것을 마이크로필름으로 만든 것이다.²⁰⁾

였고 서양역법인 時憲歷을 도입하였다. 그의 아들 김좌명은 현종9년(1668)에 守禦廳의 守禦使로 있으면서 ‘戊申字’를 주조하였고, 손자인 김석주는 숙종 초년(1678년 무렵)에 당대의 명필가였던 韓構의 필체를 바탕으로 ‘韓構字’를 주조하였다.

17) 김좌명(1616~1671) : 字는 一正, 號는 歸溪, 영의정 김육의 아들. 1633년(인조11) 司馬試를 거쳐, 1644년 別試文科에 丙科로 급제, 承文院에 등용된 후 1646년(인조24) 兵曹佐郎으로 文科重試에 丙科로 급제, 修撰이 되었다. 효종 때 대사헌·경기도 관찰사·대사간·대사성·도승지 등을 역임하고, 현종 초에 다시 대사헌·도승지를 거쳐 예조참판을 지냈고, 1662년(현종 3) 공조·예조의 판서를 역임, 같은 해 兵曹判書 兼 守禦使가 되어 병기·군량을 충실히 하고 군사훈련을 엄격히 실시했으며 글씨에도 능했다.

18) 김석주(1634~1684) : 字는 斯百, 號는 息庵, 효종 때 영의정을 지낸 金堉의 손자이고 현종 때 병조 판서를 지낸 金佐明의 아들이다. 조선후기에 김육 김좌명 김석주의 3대에 걸쳐서 『增補萬病回春』을 간행하였다. 金堉는 行書體 木活字本으로, 金佐明은 戊申字의 금속활자로, 金錫胄는 韓構字의 금속활자로 『增補萬病回春』을 간행하였다.

19) ④번의 판본은 ‘김석주간본’과 내용이 동일하고, ②번과 ⑤번의 판본은 아직까지 연구자가 구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①번, ③번, ④번의 판본을 중심으로 『增補萬病回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0) 본 논문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마이크로필름을 참고하여 ‘김육간본’을 연구하였다.

◆ 金錫胄刊本

서명 / 저자 增補萬病回春 / 龔廷賢 撰
출판사항 刊寫地未詳 : 刊者(金錫胄) : 속종5년(1679년)
형태사항 10卷 10冊 : 四周雙邊, 半郭 23.0×14.4cm.
11行22字 註雙行, 版心:內向三葉花紋魚尾. 30.0×18.6cm.
주기사항 版心書名 : 回春
序: 龔廷賢自序
판사항 韓構字本

‘김석주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10卷 10冊으로 소장되어 있다. 김육의 손자인 김석주가 김육이 간행한 『증보만병회춘』을 보완하여 『壽世保元』 『百代醫宗』 『醫林撮要』 『醫學正傳』 등에 나오는 중요한 처방을 추가하여 간행하였다.

◆ 간행년대를 알 수 없는 木版本

서명 / 저자 增補萬病回春 / 龔廷賢 撰
출판사항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 刊寫年未詳
형태사항 10卷 10冊 : 四周雙邊, 半郭 21.2×14.1cm.
有界 11行 1行22字, 版心:上下花紋魚尾. 33.4×20.6cm.
주기사항 版心書名 : 回春
序: 龔廷賢自序
판사항 木版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아주 깨끗한 완질의 10卷 10冊이 소장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있다.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에는 4권, 6권, 7권의 缺本이 소장되어 있다. 위에 나온 ‘김석주간본’과 내용이 동일하다.

3. 김육간본의 특징 (1차 증보)

효종 7년(1656년)에 당시 영의정이었던 都提調 金堉의 건의로 간행된 판본이다. 김육은 1651년(효종2년)에 손녀가 왕세자빈으로 책정되면서 領議政과 領敦寧府事に 제수되어 관직과 지위가 최절정에 이르렀고 여러 중요한 직책을 겸직하였다. 그런데 그는 여러 겸직 중에서도 內局²¹⁾의 都提調職에 각별히 힘을 기울였는데, 1653년(효종4년)에는 임금과 왕

21) 조선시대에 內醫院은 궁중의료기관으로 왕과 왕족의 疾病을 治療하고 藥을 조제하던 곳이다. 內局, 內藥房, 藥院 등으로도 일컫는다.

비의 病患에 대비하여 대궐 아래에서 숙직하거나 ‘侍藥廳²²⁾’까지 설치하기도 하였다.²³⁾ 그리고 1656년에는 공정현의 『만병회춘』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새롭게 증보하여 『증보만병회춘』을 간행하였는데, 『승정원일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영돈영부사인 金堉이 장계를 올려서 말하였다. “요즈음 內局의 醫方서적이 끊어져서 적습니다. 『萬病回春』은 議藥之時에 최고로 긴요한 醫書인데, 단지 唐本만이 있어서 상세하고 간략한 것이不同하니 印出하여서 考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컨대 校書館에 명하여서 속히 印出하게 함이 어떨겠습니까?” uppercase로 말씀하시길,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²⁴⁾

김육의 주도로 1656년에 간행된 『增補萬病回春(10권)』에는 다른 판본과 달리 이 책의 편찬에 참여한 인물들이 ‘卷十’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다.

都提調 大匡輔國崇祿大夫 領敦寧府事 臣 金堉
 提調 正憲大夫 禮曹判書 兼知經筵義禁府事 世子右賓客 臣 吳竣²⁵⁾
 副提調 通政大夫 承政院左承旨 兼 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 臣 李弘淵²⁶⁾
 監校官 通訓大夫 行內醫院判官 臣 權愾²⁷⁾
 監校官 通訓大夫 行內醫院奉事 臣 金立誠²⁸⁾

22) 조선시대 국왕 등의 疾病이 重患일 때 두었던 임시 의료기관.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진료를 맡은 典醫監, 왕실의 醫藥을 전담한 內醫院 등이 있었으나 왕·왕비 등의 患候가 중태이거나 병세가 오래 계속될 경우 內醫院에 임시로 의약청 또는 시약청을 특설하여 內醫院 소속 이외의 醫官이나 醫方에 능통한 重臣들을 함께 참여시켜 증세와 치료 방법 등을 상의하였다. 이 제도는 잠정적 특설기관이지만, 그 중요성에 따라 많은 醫官·藥劑官과 함께 重臣(都提調, 提調, 副提調)들이 참여하였다.

23) 천혜봉, 潘谷 金堉의 編·著書와 活字印刷(『潘谷遺稿』 完譯·完刊 기념 학술회의), 민족문화추진회, 2001.

24) 『承政院日記』 효종7년(1656) 2월 22일 “... 領敦寧金堉所啓, 卽今內局醫方絶少, 萬病回春最切於議藥之時, 只有唐本, 而詳略不同, 不可不印出, 以資考閱, 請令校書館, 從速印出, 何如? 上曰, 依爲之.”

25) 오준(1587~1666) :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 同福. 字 汝完. 號 竹南. 1618년(광해군10) 增廣文科에 급제, 2년 뒤 注書에 등용되고 이어서 持平·掌令·弼善·修撰 등을 역임하였다. 1639년(인조17) 한성 부판윤으로, 1643년 등극부사로, 1648년에는 冬至使 兼 正朝聖節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650년(효종1) 禮曹判書로 知春秋館사가 되어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하고 刑曹判書·大司憲·右賓客을 거쳐 1660년(현종1) 左參贊·中樞府判事가 되었다. 문장과 글씨에 능하여 여러 번 서장관을 지냈으며 저서에 《죽남당집(竹南堂集)》이 있다.

26) 이흥연(1604~1683) :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韓山. 字는 靜伯. 號는 三竹. 1624년(인조2) 생원시에 합격, 1635년 洗馬를 거쳐 侍直으로 병자호란을 만나 왕세자를 모시고 남한산성에 호종하였다. 이듬해 정시문과에 乙科로 급제, 司諫이 되어 당시 조정에 큰 세력을 떨치고 있던 金自點을 탄핵하여 諫官으로서 명성을 떨쳤다. 효종즉위 후 좌승지·황해감사·대사간·예조참의·병조참의·형조참의 등을 두루 거쳐, 호조참판·도승지에 올랐다.

27) 권유(1616~1693) : 조선 후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年間의 御醫, 고향은 安東, 字는 樂而, 仁祖 己卯年(1639)에 登科한후 癸未年(1643)에 內醫院에 들어와서 숙종 때(1693)까지 거의 평생을 걸쳐서 宮中에서 御醫로 재직하였다. 『太醫院先生案』에 의하면 陽川 高陽 果川의 守을 지냈고, 崇祿首醫로 78세까지 살았다고 적혀 있다. 『朝鮮王朝實錄』에는 판부사 허적, 우의정 송시열 등이 병이 났을 때 御醫 權愾를 파견하여 치료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위 내용을 통해 보면 ‘김육간본’은 조선의 내의원에서 중심이 되어 편찬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조선을 대표하는 관료인 內醫院 都提調 領議政 金堉, 提調 禮曹判書 吳竣, 副提調 左承旨 李弘淵의 감독 하에 內醫院 醫官 두 명(內醫院判官 權愔와 內醫院奉事 金立誠)을 ‘監校官’으로 하여 刊行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⁹⁾ 이와 같은 내용은 조선후기에 임금의 윤험을 받아 내의원에서 편찬하여 간행한 醫書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양식인데, 1607년에 내의원에서 開刊한 『診解救急方』, 1608년의 『醫林撮要續集』 『診解胎產集要』 『診解痘瘡集要』, 1612년의 『纂圖方論脈訣集成』, 1613년의 『東醫寶鑑』 『新纂辟瘟方』 『辟疫神方』 등에서 모두 두 명의 內醫院 醫官들이 ‘監校官’으로 醫書의 編纂, 刊行作業에 참여하고 있다.³⁰⁾

다음으로는 ‘金堉刊本’이 공정현의 『만병회춘』에 비하여 어떤 내용들이 增補되었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구자는 朝鮮에서 나온 『增補萬病回春』의 내용과 龔廷賢의 『萬病回春』을 직접 비교해 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金堉刊本’ 『증보만병회춘』은 공정현의 『만병회춘』이 詳略이 不同하여 당시 조선에서 議藥廳이나 侍藥廳을 설치하여 참고할 때에 불편함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46개의 ‘方旨’ 내용을 增補하여 조선에서 새롭게 편찬한 서적이다.

둘째, 조선에서 增補한 46개의 ‘方旨’ 내용은 吳崑의 『醫方考』에서 인용한 것인데 약 393개의 처방이 수록되어 있다.³¹⁾ 공정현의 『만병회춘』이 脈訣 病論 治法 方藥의 원칙에 따라 각각의 질병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지만 다분히 先賢들의 경험에 의한 特效方 위주의 설명이 많았고, 따라서 각 處方의 立方原理나 구체적인 적응증상을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特效方에 집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폐해가 생기게 되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만병회춘』에서 이러한 부족한 점을 직시하고 각 方劑의 立方原理, 方劑중 藥物의 配伍意義, 각 藥物의 升降浮沈에 따른 效能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46개의 ‘方旨’ 내

28) 김입성(1615~1686) : 조선후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年間의 醫官, 고향은 三陟, 字는 克明, 仁祖 戊子年(1648)에 擧科한후 壬辰年(1652)에 內醫院에 들어와서 侍藥廳에서 掌務官으로 근무하였다. 『承政院日記』에는 金立誠과 관련된 기록이 약 27회 정도 나오는데, 현종3년(1662)에는 左議政 沈之源과 兵曹參判 柳赫然을 치료한 기록이 실려 있다.

29) 내의원에서 1607년에 開刊한 허준의 『診解救急方』에도 비슷한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都提調 大匡 輔國崇祿大夫 議政府 領議政 臣 柳永慶, 副提調 嘉義大夫 行承政院都承旨 臣 權愔, 監校官 通訓大夫 行 內醫院主簿 臣 李絡, 通訓大夫 內醫院直長 臣 申得一.” 따라서 당시 조선에서 醫書를 편찬, 간행할 때에 內醫院 都提調의 책임 하에 內醫院 醫官 두 명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작업을 감독, 교정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0) 『診解救急方』의 편찬에는 李絡과 申得一, 『醫林撮要續集』 『診解胎產集要』 『診解痘瘡集要』의 편찬에는 李絡과 李希憲, 『纂圖方論脈訣集成』 『東醫寶鑑』 『新纂辟瘟方』 『辟疫神方』의 편찬에는 李希憲과 尹知微가 각각 참여하였다.

31) 吳崑의 『醫方考』는 각각의 질병을 총 72개의 門으로 분류하고 약 700여수의 古今의 名方과 藥物治驗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에서 중복되는 方劑를 제외하면 약 614개 정도가 되는데, 『增補萬病回春』에서는 그 중에서 약 393개의 처방이 수록되었다.

용을 增補하였다.

셋째, 『增補萬病回春』을 편찬하면서 조선 의사들은 기존 『萬病回春』의 處方에서 약물의 구성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새로운 약물을 첨가하였다.

넷째, 『增補萬病回春』을 편찬하면서 조선 의사들은 기존 『萬病回春』의 處方에서 약물의 용량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다시 설정하였다.

다섯째, 『增補萬病回春』을 편찬하면서 조선 의사들은 기존 『萬病回春』의 處方에서 약물의 순서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재배치하였다.

① 공정현의 『萬病回春』에 『醫方考』 내용을 보충하였다.

『증보만병회춘』에서 가장 큰 특징은 공정현의 『만병회춘』에 『醫方考』의 내용을 보충하여 10권으로 확대, 재판집한 것이다. 본 연구자의 조사에 의하면 ‘김육간본’에는 총 46개 方旨에 걸쳐서 393개의 『의방고』 處方이 추가되었다. 『의방고』에 수록된 700여개의 처방 중에서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약 60% 정도가 『增補萬病回春』의 내용으로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당시 조선의 의사들이 공정현의 『만병회춘』에서 부족한 醫論이나 藥物에 대한 설명을 吳崑의 『의방고』에 수록된 處方이나 處方 속에 나오는 病理機轉, 각 藥物의 配伍原則, 유명한 醫師들의 醫論說明 등으로 보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方旨’ 내용은 朝鮮醫家들이 임상에서 많이 사용한 개별 처방이나 구성약물의 의미를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당시 朝鮮醫學이 방제학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增補萬病回春』에 추가된 ‘方旨’ 와 ‘增補云’

增補萬病回春(10권)	추가된 方旨 (46개)	추가된 增補云 (10개)
卷一	없음	
卷二	風門方旨(13) 寒門方旨(27) 瘟疫門方旨(12) 中暑門方旨(4) 中濕門方旨(5)	中風門(烏藥順氣散 防風通聖散 蘇合香元) 傷寒門(升麻葛根湯 小柴胡湯 桃仁承氣湯 竹葉石膏湯)
卷三	火證門(24) 內傷門(15) 鬱證門(5) 痰飲門(10) 咳嗽門(15) 哮喘門(6) 瘡門方旨(18)	
卷四	痢疾門(10) 泄瀉門(9) 霍亂門(4) 嘔吐門(4) 翻胃門(4) 呃逆門(2) 吞酸門(3) 嘈雜門(2) 氣門(3) 水腫門(5) 五疔門(7) 斑疹門方旨(4)	
卷五	虛勞門方旨(22) 血證門方旨(22) 汗證門方旨(5) 癲狂門方旨(5)	虛勞門(六味地黃丸) 健忘門(歸脾湯 孔子大聖枕中方)
卷六	濁門(5) 遺溺門(2) 小便閉門(3) 痔漏門(3) 脫肛門(3) 頭痛門(6) 鼻疾門方旨(2)	

卷七	眼疾門(9) 喉閉門(6) 腹痛門(11) 脚氣門(7) 瘥門方旨(2)	
卷八	帶下門(3) 求嗣門(5) 妊娠門(26) 乳病門方旨(3)	
卷九	痘瘡門方旨(26)	
卷十	疥癩門方旨(6)	
분석	총46개 '方旨'에서 393개의 처방이 增補됨	총10개의 처방에서 '增補云'의 내용이 첨가됨

② 약물의 구성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새로운 약물을 첨가하였다.

『증보만병회춘』의 또 다른 특징은 공정현의 『만병회춘』 처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게, 혹은 조선 사람들의 질병에 보다 적합하도록 변경시켜 놓았다는데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傷寒門에서 ‘痰結’을 치료하는 清火化痰湯이 있다.

표2. 『增補萬病回春』과 『萬病回春』의 清火化痰湯 내용비교

중국의 萬病回春 ³²⁾	조선의 增補萬病回春 ³³⁾
清火化痰湯	清火化痰湯
黃連 黃芩 梔子 瓜蒌仁 貝母 桔梗	黃連 黃芩 梔子 瓜蒌仁 貝母 桔梗
	半夏 陳皮 茯苓 蘇子 朴硝 枳殼
桑白皮 甘草 木香 杏仁	桑白皮 甘草 木香 杏仁

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공정현의 『만병회춘』에서는 ‘清火化痰湯’의 처방 구성이 黃連 黃芩 梔子 瓜蒌仁 貝母 桔梗 桑白皮 甘草 木香 杏仁의 총 10가지 약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조선에서 『증보만병회춘』이 간행될 때는 위 처방의 내용에 半夏 陳皮 茯苓 蘇子 朴硝 枳殼의 6가지 약물이 새로 추가되었다. 당시에 조선의 의사들은 『만병회춘』에 나오는 ‘清火化痰湯’의 약물구성으로는 熱痰이 胸膈사이에 맺혀서 생기는 傷寒結胸의 증상을 완전하게 치료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傷寒內熱과 腹中의 實痰을 함께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약물인 朴硝를 추가로 사용하였고, 여기에 半夏 陳皮 茯苓 蘇子 枳殼 등의 약물로 도와주고 있다.

32) 『萬病回春·傷寒』“傷寒結胸者，熱痰結也。[清火化痰湯]治熱痰在胸膈間不化，咯吐不出、寒熱氣急、滿悶作痛者，名結痰。黃連 黃芩 梔子 瓜蒌仁 貝母 桔梗 桑白皮 甘草 木香另研 杏仁 右銼生薑三片，水煎，入竹瀝、薑汁少許，磨木香同服。”

33) 『增補萬病回春·傷寒』“傷寒結胸者，熱痰結也。[清火化痰湯]治熱痰在胸膈間不化，咯吐不出、寒熱氣急、滿悶作痛者，名痰結。黃連 黃芩 梔子 貝母 桔梗 (枳殼) 瓜蒌仁 (陳皮 半夏 茯苓 蘇子 朴硝) 杏仁 桑白皮 甘草 木香另研 右銼生薑三片，水煎，入竹瀝、薑汁少許，磨木香同服。”

③ 약물의 용량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다시 설정하였다.

조선의 의사들은 『增補萬病回春』을 편찬하면서 기존 『萬病回春』의 處方에서 약물의 용량이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조선의 상황에 맞추어서 다시 설정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증보만병회춘』의 여러 부분에서 보이는데, 대표적인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표3. 『增補萬病回春』과 『萬病回春』의 내용비교

처 방	중국의 『萬病回春』	조선의 『增補萬病回春』
朱砂安神丸	朱砂(二錢) ³⁴⁾	朱砂(五錢) ³⁵⁾
養血清火湯	酸棗仁(炒) 麥門冬(各一兩)	酸棗仁(炒) 麥門冬(各一錢)
清涼散	桔梗(減半) ³⁶⁾	桔梗(倍) ³⁷⁾

④ 약물의 순서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재배치하였다.

『增補萬病回春』을 편찬하면서 조선의 의사들은 『萬病回春』의 處方에서 약물의 순서를 조선의 실정에 맞게 재배치하였다. 즉 『만병회춘』에서는 기본적인 처방이나 동일한 효능 위주로 약물을 배치하였는데, 『증보만병회춘』에서는 藥物 用量的 多少에 따라서 순서를 재배치하고 있다. 위에 나온 ‘養血清火湯’의 경우를 예로 들면 『만병회춘』에서는 처방의 기본이 되는 四物湯 方劑(當歸 川芎 白芍 生地黃)를 먼저 배치한 후, 다음에 黃連 黃芩 梔子和 酸棗仁 遠志 辰砂 등의 약물을 비슷한 효능별로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하지만 『증보만병회춘』에서는 위와 같은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藥物의 用量’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용량이 많은 것부터 시작하여 적은 것으로 차례대로 배치하였다. 이외에도 『만병회춘』에서는 每 藥物마다 약물의 용량을 일일이 기재하였으나, 『증보만병회춘』에서는 同一한 用量的 藥物들을 모아서 한 번에 표시하여 알아보기 편하게 하였다.

표4. 『增補萬病回春』과 『萬病回春』의 養血清火湯 내용비교

- 34) 『萬病回春·朱砂安神丸』“治血虛心煩懊懣、驚悸怔忡、胸中氣亂。朱砂(另研末, 水飛過, 二錢) 當歸(酒洗淨, 二錢半) 生地黃(酒洗, 一錢五分) 黃連(酒洗炒, 六錢) 甘草(炙, 二錢半) 一方加人蔘 白朮(去蘆) 茯苓(去皮) 酸棗仁(炒) 麥門冬(去心, 各等分) 上爲末, 煉蜜爲丸, 如黍米大。每服五十丸, 食遠空心米湯送下。”
- 35) 『增補萬病回春·朱砂安神丸』“治血虛心煩懊懣、驚悸怔忡、胸中氣亂。朱砂(另研末, 水飛過, 五錢) 黃連(酒炒, 六錢) 生地黃(酒洗, 一錢半) 當歸(酒洗淨) 甘草(炙, 各二錢半) 一方加人蔘 白朮 麥門 山棗仁炒 茯苓(等分) 上爲末, 煉蜜丸, 如黍米大。每服五十丸, 食遠清心米湯下。”
- 36) 『萬病回春·清涼散』“治一切實火 咽喉腫痛。山梔 連翹 黃芩 防風 枳殼 黃連 當歸 生地 甘草(各等分) 桔梗 薄荷(減半) 白芷(減半或不用亦可) 上銑一劑, 燈心一團、細茶一撮, 水煎, 磨山豆根調服。”
- 37) 『增補萬病回春·清涼散』“治一切實火 咽喉腫痛。山梔 連翹 黃芩 防風 枳殼 黃連 當歸 生苳 甘草(各等分) 桔梗(倍) 薄荷(減半) 白芷(減半或不用亦可) 上銑一劑, 燈心一團、細茶一撮, 水煎, 磨山豆根調服。”

중국의 萬病回春	조선의 增補萬病回春
養血清火湯	養血清火湯
當歸 川芎(七分) 白芍 生地黃 黃連(各一錢) 片苓(八分) 梔子(八分) 酸棗仁 麥門冬(各一兩) 遠志 辰砂(五分,另研調服) 甘草(三分)	當歸 白芍 生地黃 黃連 酸棗仁 麥門冬 遠志(各一錢) 片苓 梔子(各八分) 川芎(七分) 甘草(三分) 辰砂(五分,另研調服)

4. 김석주간본의 특징 (2차 증보)

金堉의 손자인 金錫胄는 1678년(숙종4년) 경에 당대의 명필가인 韓構의 글씨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적으로 銅活字를 주조하였는데 이것이 ‘韓構字’이다. 김석주는 자신이 만든 ‘한구자’로 할아버지가 편찬했던 여러 종류의 서적들을 간행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1679년에 ‘한구자’로 된 『增補萬病回春』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承政院日記』의 숙종5년(1679) 기록을 살펴보면 김석주가 간행한 『증보만병회춘』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김석주가 말하였다. “臣에게 稟達之事가 있는데 매번 引見時에 일이 많아서 아뢰지 못했습니다. 內局에 있는 醫書들이 唐本이나 鄉本을 막론하고 모두가 弊破되었습니다. 『萬病回春』과 같은 서적은 최고로 緊要한 醫書이지만 前日에 印出한 것이 숫자가 많지 않았고, 국가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장차 乏絶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增補萬病回春』 속에 다시 『壽世保元』 등의 他方要藥을 첨가하여 印出해서 頒布하려고 합니다. 만약 『萬病回春』의 印出작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소문을 듣고 印出에 간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鑄字와 均字에 참여하는 장인들의 월급은 마땅히 兵曹에서 계산해서 제공하고, 糧料와 紙地 등의 雜物은 戶曹의 上下로부터 공급하며, 御醫 중에서 두 사람을 뽑아서 監印官으로 정하여 감독하게 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上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하라. 二百餘件을 印出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하셨다.³⁸⁾

위의 설명에 의하면 金錫胄가 간행한 『增補萬病回春』은 이전에 간행되었던 『증보만병회춘』의 내용에 다시 『壽世保元』 등의 ‘他方要藥’을 첨가하여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김석주간본’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분석해

38) 『承政院日記』숙종5년(1679) 7월 27일 “錫胄曰, 臣有所稟達之事, 而每於引見, 多事未果矣. 內局所有醫書, 無論唐鄉本, 盡皆弊破. 如萬病回春, 最是緊要之書, 而前日印出, 其數不多, 公私所藏, 將至乏絶. 今欲於增補回春中, 更爲添入壽世保元等他方要藥, 印出頒布, 若始其印役, 則必多聞風而來印者矣. 鑄字·均字等各工匠朔布, 則當自兵曹, 斟酌題給, 而糧料及紙地等雜物, 竝自戶曹上下, 御醫中二人, 亦爲擇定監印官, 使之董役, 何如? 上曰, 依爲之. 印出二百餘件, 可也.”

보았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김석주간본’은 앞 시대에 조선에서 나온 『증보만병회춘』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壽世保元』, 『百代醫宗³⁹⁾』, 『醫林撮要』, 『醫學正傳』 등에 나오는 처방 중에서 실제로 조선에서 많이 사용된 중요한 처방을 추가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 하였다. ‘김석주간본’에는 『수세보원(1615)』에서 87개 처방, 『백대의종(1607)』에서 44개 처방, 『의림촬요』에서 6개 처방, 『의학정전』에서 2개 처방, 『고금의감』에서 1개 처방 등 총 140개의 새로운 처방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앞의 ‘김육간본’에서 吳崑의 『醫方考』 내용을 增補한 것과는 또 다른 것으로, 조선에서 『만병회춘』을 1차로 增補하여 刊行한 이후에 축적된 수십년 동안의 임상경험을 또 다시 정리하고 편집하여 간행한 것이다. 따라서 총 140여개의 增補된 處方 대부분이 1차 增補時에 사용되지 않았던 塗紳의 『百代醫宗』, 龔廷賢의 『壽世保元』, 楊禮壽의 『醫林撮要』 등에서 추가되었다.

조선에서 2차로 增補된 ‘김석주간본’에서 특히 주목해 볼 점은 양예수의 『醫林撮要』에서 몇 가지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 점이다. 비록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총 6회에 걸쳐서 『의림촬요』의 처방내용이 인용되었는데 ‘嘔吐門’에 나오는 黃連六一湯, ‘鼓脹門’의 清中導濕湯, ‘水腫門’의 導水茯苓湯 補中行濕湯, ‘補益門’의 蓼朮調中湯, ‘眼目門’의 東垣瀉熱黃連湯 등이다. 따라서 당시 조선의 의사들이 『의림촬요』의 처방 중에서 위에 나오는 처방들을 실제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였으며, 또 그와 같은 축적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만병회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새롭게 『증보만병회춘』으로 탄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승정원일기』에 나오는 조선의사들의 질병치료 기록을 보면 朝鮮의 醫師들은 동일한 처방을 사용할 경우에도 환자의 증상에 따라 藥物의 加減을 다르게 하였으며, 또 여러 의사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증상기록(醫官症錄)을 가지고 다양하게 의견을 공유한 이후에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축적된 의학경험들이 조선에서 의서를 편찬할 때 참고가 되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조선에서 『증보만병회춘』이 간행될 때에도 위와 같은 조선의사들의 다양한 노력이 반영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조선의사들의 끊임없는 노력과정을 통하여 조선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만병회춘』의 증보가 이루어진 것이다.

조선에서 위와 같은 1차, 2차의 편찬과정을 통해서 『만병회춘』의 증보가 이루어진 것은 지식의 원출처를 떠나서 韓國과 中國의 당시 발전된 의학지식이 서로 結合하고 融合되는 것으로, 그 이면에는 새로운 지식자원을 재빠르게 받아들이고 응용하여 自己化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있는 수많은 조선시대 의사들의 노력이 담겨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시 조선시대의 의학수준이 기존의 中國醫書を 반복적으로 學習하고 引用하

39) 明나라 태의원 의관 塗紳이 1607년에 지은 綜合醫書이다. 全書는 모두 10권으로 총 224편에 달하는 醫論이 담겨져 있으며, 內科 外科 婦人科 小兒科 傷科 등의 各科 病證의 證治를 위주로 기술하였다. 그 중에서도 저자는 역대 名醫로부터 名醫들의 장점을 골라 載錄하였는데, 특히 朱丹溪의 雜病에 관한 診斷과 治法을 ‘活套’라 하여 매우 중시하였다. 안상우, 「신지식의 도입과 의학의 재구성(百代醫宗)」, [고의서산책 310], 민족의학신문.

는데 그쳤으며, 『東醫寶鑑』이나 『醫林撮要』의 편찬이 기존 中國醫書들의 내용을 보기 좋게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는 朝鮮醫學에 대한 偏見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5. 김석주가 간행한 『增補萬病回春』에 추가된 ‘他方要藥’

增補萬病回春 (10권)	추가된 他方要藥	增補 내용
卷一	없음	당시 조선에서 많이 사용하였던 140개의 ‘他方要藥’을 새롭게 增補함 『壽世保元』 87개 처방 『百代醫宗』 44개 처방 『醫林撮要』 6개 처방 『醫學正傳』 2개 처방 『古今醫鑑』 1개 처방
卷二	中風(5) 傷寒(5) 中暑(3) 中濕(1)	
卷三	火證(2) 內傷(1) 飲食(1) 痰飲(1) 咳嗽(4) 哮喘(2) 癩疾(2)	
卷四	痢疾(1) 泄瀉(3) 嘔吐(3) 翻胃(1) 呃逆(3) 吞酸(1) 嘈雜(2) 氣門(2) 痞滿(4) 鼓脹(2) 水腫(3) 積聚(2) 五疸(1) 斑疹(2) 發熱(3)	
卷五	補益(2) 虛勞(1) 血證(1) 汗證(1) 麻木(1) 癲狂(1)	
卷六	遺精(2) 小便閉(1) 脫肛(2) 頭痛(1) 耳病(2) 口舌(5) 牙齒(2)	
卷七	眼疾(5) 心痛(3) 腰痛(1) 癩疔(5) 消渴(1)	
卷八	調經(1) 經閉(2) 血崩(1) 帶下(2) 求嗣(2) 妊娠(2) 產育(2) 產後諸疾(14)	
卷九	急驚(1) 疳疾(1) 癖疾(1) 傷食(1) 痢疾(1) 癩疹(12)	
卷十	없음	
분석	총58개 ‘門’에서 140개의 처방이 增補됨	

표6. ‘他方要藥’의 내용분석 (中風 傷寒 中暑 嘔吐 水腫門)

增補萬病回春	추가된 他方要藥
中風(5)	轉舌膏(保元) 龍星丹(醫宗) 熬麻黃膏(醫宗) 史國公藥酒方(醫宗) 通經導滯湯(醫宗)
傷寒(5)	柴胡雙解散(保元) 加減犀角地黃湯(保元) 安神益志湯(保元) 和解散(醫宗) 續和解散(醫宗)
中暑(3)	清肺湯(醫宗) 清暑化痰湯(醫宗) 香薷解毒湯(保元)
嘔吐(3)	苓連二陳湯(醫宗) 橘梔竹茹湯(醫宗) 黃連六一湯(撮要)
水腫(3)	行濕補中湯(保元) 導水茯苓湯(撮要) 補中行濕湯(撮要)

5. 『증보만병회춘』의 간행시기 고찰

위에서는 ‘김육간본’과 ‘김석주간본’을 중심으로 하여 『增補萬病回春』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장에서는 『증보만병회춘』의 간행시기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증보만병회춘』의 판본은 1656년에 金堉이 간행한 것이다. 하지만 1656년은 중국에서 공정현의 『만병회춘』이 初刊된 1588년이나, 重刊된 1602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도 1611년에 공정현의 『만병회춘』이 活字本으로 간행되었다. 조선에서 공정현의 『만병회춘』이 가장 먼저 인용된 서적은 『의림촬요속집』인데, 이 책은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 가을에 내의원에서 간행한 것으로 方廣의 『丹溪心法附餘』, 李梴의 『醫學入門』, 龔信的 『古今醫鑑』, 龔廷賢의 『萬病回春』 등에서 중요한 처방을 추려서 모아놓은 서적이다.⁴⁰⁾

따라서 論者는 『의림촬요속집』에 인용되어 있는 『만병회춘』의 내용과 조선에서 간행한 『증보만병회춘』의 내용을 비교해 봄으로써, 조선에서 『증보만병회춘』이 최초로 간행된 시기가 언제인지 추론해 보고자 한다.

① 『醫林撮要續集』과의 내용비교

『의림촬요속집』에 인용된 『만병회춘』의 내용을 공정현의 『만병회춘』과 상호 비교해 본 결과 아래의 4가지 항목에서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아래 4가지 항목이 『증보만병회춘』의 내용과는 모두 일치하였다. 따라서 1608년에 조선에서 『의림촬요속집』을 편찬할 때 참고로 한 『만병회춘』이 공정현의 『만병회춘』이 아니라, 1608년 이전에 조선에서 이미 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증보만병회춘』을 참고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림촬요속집』 下血門에 인용된 ‘地榆槐角丸’에는 “治腸風積熱 下血痔漏疼痛”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하지만 『만병회춘』의 판본에는 어느 곳에도 위와 같은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직 조선에서 나온 『증보만병회춘』에만 위의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또 약물의 전체적인 순서에 있어서도 『의림촬요속집』의 기록은 약물의 용량에 따라 순서를 재배치한 『증보만병회춘』의 내용에 보다 근접해 보인다.

2. 『의림촬요속집』 痔漏門에 인용된 ‘牛黃金花散’에는 “牛黃金花散을 痔漏에 붙인다.”는 설명이 나오는데 『만병회춘』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다. 오직 조선의 『증보만병회춘』에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3. 『의림촬요속집』 傷損門에 인용된 ‘神效葱熨法’에서는 “治跌撲傷損. 葱白細切, 杵搗爛炒熱傅患處. 如冷易之, 腫痛即止.”라고 하여 『만병회춘』과 달리 맨 마지막에 ‘其

⁴⁰⁾ 김홍균, 上揭書, p.41.

效如神'이라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조선의 『증보만병회춘』에서도 『의림촬요속집』과 동일하게 '其效如神'이라는 내용이 생략되었다.

4. 『의림촬요속집』 婦人門에는 '芎歸調血飲'이라는 처방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만병회춘』에서 '芎歸補血湯'으로 나오는 처방이다. 『증보만병회춘』에서는 『의림촬요속집』의 내용과 동일하게 '芎歸調血飲'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의림촬요속집』을 간행할 때에 공정현의 『만병회춘』을 참고로 편찬한 것이 아니고, 조선에서 간행된 『증보만병회춘』을 참고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7. 『醫林撮要續集』과의 내용비교

『醫林撮要續集』	중국의 「萬病回春」	조선의 「增補萬病回春」
[地榆槐角丸] ⁴¹⁾ 治腸風積熱 下血痔漏疼痛	[地榆槐角丸] ⁴²⁾ 설명내용이 없음	[地榆槐角丸] ⁴³⁾ 治腸風積熱 下血痔漏疼痛 久服除根
[牛黃金花散] 敷痔漏	[牛黃金花散] 설명내용이 없음	[牛黃金花散] 敷痔漏良方
[神效葱熨法]治跌撲傷損。 用葱白細切，杵搗爛炒熱傳患處。 如冷易之，腫痛即止	[神效葱熨法]治跌撲傷損。 用葱白細切，杵爛燒熱敷患處。如 冷易之，腫痛即止。 其效如神	[神效葱熨法] 治跌撲傷損。用葱白細切，杵爛炒 熱敷患處。如冷易之，腫痛即止
[芎歸調血飲]	[芎歸補血湯]	[芎歸調血飲]

② 「東醫寶鑑」과의 내용비교

論者は 위에서 여러 가지 내용비교를 통해서 『增補萬病回春』의 간행시기가 1608년에 간행된 『의림촬요속집』보다 앞설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許浚이 1610년에 집필을 완성하고 1613년에 내의원에서 간행한 『東醫寶鑑』과의 선후관계는 어떻게 될까? 위에서 진행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의보감』에 인용된 『만병회춘』의 내용을 공정현의 『만병회춘』, 조선의서 『증보만병회춘』의 내용과 상호 비교해 본 결

41) 『醫林撮要續集·地榆槐角丸』“治腸風積熱 下血痔漏疼痛。當歸(酒洗) 生地黃 地榆(各二兩) 黃連(酒炒) 條芩(酒洗) 川芎 白芍(酒炒) 黃柏(酒炒) 梔子(炒) 連翹 防風(各一兩) 枳殼(二兩) 槐角(一兩半) 茜根 側柏葉 茯神 陳皮 荊芥(各五錢) 右末，酒糊爲丸，如桐子大。每服七十丸，空心，滾白水送下。或好細茶亦可。[回春]”

42) 『萬病回春·地榆槐角丸』“當歸(酒洗，二兩) 川芎(一兩) 白芍(酒炒，一兩) 生地黃(二兩) 黃連(酒炒，一兩) 條芩(酒洗，一兩) 黃柏(酒炒，一兩) 梔子(炒，一兩) 連翹(一兩) 地榆(二兩) 槐角(一兩半) 防風(一兩) 荊芥(五錢) 枳殼(去穢，二兩) 茜根(五錢) 側柏葉(五錢) 茯神(五錢) 陳皮(五錢) 上爲細末，酒糊爲丸，如梧桐子大。每服七十丸，空心，白滾水送下。或加細茶亦可。”

43) 『增補萬病回春·地榆槐角丸』“治腸風積熱 下血痔漏疼痛 久服除根。當歸(酒洗) 枳殼 生芩 地榆(各二兩) 川芎 黃連(酒炒) 防風 條芩(酒洗) 黃柏(酒炒) 梔子(炒) 白芍(酒炒) 連翹(各一兩) 茯神 荊芥 茜根 陳皮 側柏葉(各五錢) 槐角(一兩半) 右爲末，酒糊爲丸，如梧桐子大。每服七十丸，空心，白滾水送下。或好細茶亦可。”

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아래 <표8>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동의보감』에 인용된 『만병회춘』의 처방 중에서 結核의 ‘消解散’과 積聚의 ‘加味柴平湯’은 공정현의 『만병회춘』이 아니라 『증보만병회춘』에서 인용되었다.

2. 『동의보감』 交腸證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만병회춘』의 ‘陰盛失於傳送’이 ‘陰陽失於傳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증보만병회춘』에서 인용된 것이다.

3. 『동의보감』 痰飲門에 인용된 ‘清火化痰湯’의 약물구성을 보면 공정현의 『만병회춘』에서 인용된 것이 아니라, 『증보만병회춘』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즉 조선 의사들이 공정현의 ‘清火化痰湯’을 실제 임상에서 사용해보고 당시 조선 사람들의 질병양식에 보다 적합하도록 처방의 약물구성을 재조정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동의보감』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서적들, 즉 『醫林撮要(13권본)』, 『濟衆新編』, 『醫宗損益』 등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4. 『동의보감』 咽喉門에 나오는 ‘清涼散’의 처방내용을 보면 『증보만병회춘』에서 『동의보감』으로 이어지는 약물의 용량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조선 의사들은 咽喉腫痛을 치료할 때 ‘清涼散’을 사용하면서 桔梗의 作用을 증시하여 약물의 용량을 다른 약물의 2배로 설정하였는데, 이러한 약물 운용은 『동의보감』의 집필 시에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약물 용량의 변화는 『萬病回春』에서 사용한 약물의 용량이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당시 조선의 현실에 맞게 재조정된 것이다.

표8. 『東醫寶鑑』과의 내용비교

『東醫寶鑑』	중국의 『萬病回春』	조선의 『增補萬病回春』
結核 [消解散] 積聚 [加味柴平湯]	結核 [消毒散] 積聚 [柴胡湯]	結核 [消解散] 積聚 [加味柴平湯]
[交腸證]—婦人 病愈後 小便出尿 此陰陽失於傳送 名爲大小腸交也 ⁴⁴⁾	[婦人諸病]—婦人 病愈後 小便出尿 此陰盛失於傳送 名大小腸交也 ⁴⁵⁾	[婦人諸病]—婦人 病愈後 小便出尿 此陰陽失於傳送 名大小腸交也 ⁴⁶⁾
[清火化痰湯] (半夏 陳皮 赤茯苓) 各一錢 桔梗 (枳殼) 瓜蒌仁 各七分 黃連 黃芩 梔子 貝母 (蘇子) 桑白皮 杏仁 (芒硝) 各五分 木香 甘草 各三分	[清火化痰湯] 黃連 黃芩 梔子 瓜蒌仁 貝母 桔梗 桑白皮 甘草 木香 杏仁	[清火化痰湯] 黃連 黃芩 梔子 貝母 桔梗 瓜蒌仁 (陳皮 半夏 茯苓 蘇子 枳殼 朴硝) 杏仁 桑白皮 甘草 木香
[清涼散] ⁴⁷⁾ 桔梗一錢半 梔子 連翹 黃芩 防風 枳殼 黃連 當歸 生地黃 甘草各七分 薄荷 白芷各三分	[清涼散] ⁴⁸⁾ 山梔 連翹 黃芩 防風 枳殼 黃連 當歸 生地 甘草(各等分) 桔梗 薄荷 白芷(減半)	[清涼散] ⁴⁹⁾ 山梔 連翹 黃芩 防風 枳殼 黃連 當歸 生苳 甘草(各等分) 桔梗(倍) 薄荷 白芷(減半)

③ 『濟衆新編』 과의 내용비교

論者는 위에서 여러 가지 내용비교를 통해서 『의림촬요속집』 과 『동의보감』 을 刊할 때 참고로 한 『만병회춘』 이 중국에서 간행된 공정현의 『만병회춘』 이 아니라, 1608년 이전에 朝鮮에서 增補하여 간행한 『증보만병회춘』 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렇다면 1799년에 편찬된 강명길의 『濟衆新編』 에서 참고로 한 『만병회춘』 은 어떤 판본일까? 앞에서 진행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중신편』 에 인용된 『만병회춘』 의 내용을 공정현의 『만병회춘』 , 조선에서 간행된 『증보만병회춘』 의 내용과 상호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1. 강명길이 『제중신편』 을 편찬하면서 참고로 하고 있는 『만병회춘』 은 1679년에 조선에서 간행된 ‘金錫靑刊本’ 이다. 왜냐하면 『제중신편』 口舌門에 나오는 淸胃瀉火湯, 浮腫門에 나오는 導水茯苓湯, 產後發熱에 나오는 理脾湯 등에서 그 인용의 근거로 『만병회춘』 을 제시하였지만 중국에서 간행된 공정현의 『만병회춘』 에는 위의 처방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淸胃瀉火湯은 龔廷賢의 『壽世保元』 에 나오는 처방이고, 導水茯苓湯은 楊禮壽의 『醫林撮要』 에, 理脾湯은 涂紳의 『百代醫宗』 에 나오는 처방이다. 그런데 이 처방들은 모두 김석주가 간행한 『증보만병회춘』 에서 ‘他方要藥’ 의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강명길이 ‘김석주간본’ 을 참고로 해서 『제중신편』 을 저술하였고, 그 내용의 출전으로 [回春]이라고 표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강명길이 지칭한 [回春]은 중국에서 나온 공정현의 『만병회춘』 을 말한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새롭게 『壽世保元』 『醫林撮要』 『百代醫宗』 의 중요처방을 추가하여 간행한 『증보만병회춘』 을 지칭한 것이다.

2. 『제중신편』 의 傷寒門에 인용된 竹茹溫膽湯, 心痛門에 인용된 枳縮二陳湯 등의 약물 구성을 보면 공정현의 『만병회춘』 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증보만병회춘』 에서 인용되었다. 즉 당시 조선의 의사들은 『만병회춘』 을 增補하는 과정에서 처방의 약물용량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였는데, 강명길도 『제중신편』 을 편찬하면서 이전에 조선에서 출간된 『增補萬病回春』 의 편찬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44) 『東醫寶鑑·交腸證』 “一婦人 病愈後 小便出尿 此陰陽失於傳送 名爲大小腸交也 先服五苓散(方見寒門)二劑 又用補中益氣湯而愈 [回春]”

45) 『萬病回春·婦人諸病』 “一婦人, 病愈後, 小便出尿, 此陰盛失於傳送, 名大小腸交也。先用五苓散二劑而愈; 又用補中益氣湯而安。”

46) 『增補萬病回春·婦人諸病』 “一婦人, 病愈後, 小便出尿, 此陰陽失於傳送, 名大小腸交也。先用五苓散二劑而愈; 又用補中益氣湯而安。”

47) 『東醫寶鑑·淸涼散』 “治實火 咽喉腫痛。桔梗一錢半 梔子 連翹 黃芩 防風 枳殼 黃連 當歸 生地黃 甘草各七分 薄荷 白芷各三分 右剉作一貼 燈心一團 細茶一撮 水煎服 [回春]”

48) 『萬病回春·淸涼散』 “治一切實火 咽喉腫痛。山梔 連翹 黃芩 防風 枳殼 黃連 當歸 生地 甘草(各等分) 桔梗 薄荷(減半) 白芷(減半或不用亦可) 上銚一劑, 燈心一團、細茶一撮, 水煎, 磨山豆根調服。”

49) 『增補萬病回春·淸涼散』 “治一切實火 咽喉腫痛。山梔 連翹 黃芩 防風 枳殼 黃連 當歸 生苳 甘草(各等分) 桔梗(倍) 薄荷(減半) 白芷(減半或不用亦可) 上銚一劑, 燈心一團、細茶一撮, 水煎, 磨山豆根調服。”

표9. 『濟衆新編』과의 내용비교

『濟衆新編』	중국의 『萬病回春』	조선의 『增補萬病回春』
清胃瀉火湯 導水茯苓湯 理脾湯이 [回春]에서 인용됨	清胃瀉火湯 導水茯苓湯 理脾湯이 나오지 않음	‘他方要藥’에 清胃瀉火湯 導水茯苓湯 理脾湯 등의 처방이 들어 있음
[竹茹溫膽湯] 竹茹 茯苓 桔梗 陳皮 半夏 枳實(各一錢) 人蔘(五分) ⁵⁰⁾	竹茹 桔梗 枳實(各二錢) 人蔘(五錢) 陳皮 半夏 茯苓 (八分) ⁵¹⁾	竹茹 茯苓 桔梗 陳皮 半夏 枳實(各一錢) 人蔘(五分) ⁵²⁾
[枳縮二陳湯] 枳實麩炒 砂仁 半夏薑製 陳皮 香附 (各一錢) ⁵³⁾	枳實(麩炒) 砂仁 半夏(薑汁製) 陳皮 香附 (各二錢) ⁵⁴⁾	枳實麩炒 砂仁 半夏薑製 陳皮 香附 (各一錢) ⁵⁵⁾

6. 조선에서 『증보만병회춘』이 출현한 의의

위에서 論者는 공정현의 『만병회춘』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게 새롭게 편찬한 『증보만병회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증보만병회춘』은 현재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정현의 『만병회춘』과는 별개의 새로운 조선의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현재까지 조선에서 간행된 『증보만병회춘』으로는 1656년에 金堉이 간행한 판본과 1679년에 金錫胄가 간행한 판본이 있다.

‘김육간본’은 조선의 內醫院에서 중심이 되어 편찬이 이루어졌으며, 당시 조선을 대표하는 관료인 영의정 김육의 주도 하에 內醫院判官 권유와 內醫院奉事 김임성을 ‘監校官’으로 하여 간행되었다. ‘김육간본’의 가장 큰 특징은 공정현의 『만병회춘』이 詳略이 不

50) 『濟衆新編·竹茹溫膽湯』“[回春] 治傷寒日數過多 其熱不退 夢寐不寧 心驚恍惚 煩燥多痰 不眠. 柴胡二錢 竹茹 茯苓 桔梗 陳皮 半夏 枳實(各一錢) 香附子八分 人蔘 黃連(各五分) 甘草三分 薑三片 棗一枚.”

51) 『萬病回春·竹茹溫膽湯』“治傷寒日數過多, 其熱不退、夢寐不寧、心悸恍惚、煩躁多痰不眠者. 柴胡(二錢) 竹茹 桔梗 枳實(麩炒,各二錢) 黃連(五分) 人蔘(五錢) 陳皮 半夏 茯苓 香附(八分) 甘草(三分) 上銼一劑, 生薑三片、棗一枚, 水煎服.”

52) 『增補萬病回春·竹茹溫膽湯』“治傷寒日數過多, 其熱不退、夢寐不寧、心悸恍惚、煩躁多痰不眠者. 竹茹 茯苓 桔梗 陳皮 半夏 枳實麩炒(各一錢) 柴胡二錢 香附八分 人蔘 黃連(各五分) 甘草三分 上銼一劑, 生薑三片、棗一枚, 水煎服.”

53) 『濟衆新編·枳縮二陳湯』“[回春] 治痰涎在心膈上, 攻走腰背, 嘔噦大痛. 枳實麩炒 砂仁 半夏薑製 陳皮 香附 (各一錢) 厚朴薑製 茴香酒炒 玄胡索(各八分) 木香 草豆蔻 乾薑炒(各五分) 甘草(三分) 薑三片, 水煎, 入竹瀝磨木香同服.”

54) 『萬病回春·枳縮二陳湯』“治痰涎在心膈上, 攻走腰背, 嘔噦大痛. 枳實(麩炒) 砂仁 半夏(薑汁製) 陳皮 香附(各二錢) 木香 草豆蔻 乾薑(炒, 各五分) 厚朴(薑汁炒) 茴香(酒炒) 玄胡索(各八分) 甘草(三分) 上銼一劑, 薑三片, 水煎, 入竹瀝磨木香同服.”

55) 『增補萬病回春·枳縮二陳湯』“治痰涎在心膈上, 攻走腰背, 嘔噦大痛. 枳實麩炒 砂仁 半夏薑製 陳皮 香附(各一錢) 木香 草豆蔻 乾薑炒(各五分) 厚朴薑製 茴香酒炒 玄胡索(各八分) 甘草(三分) 右銼一劑, 薑三片, 水煎, 入竹瀝磨木香同服.”

同하여 당시 조선에서 의약청이나 시약청을 설치하여 참고할 때에 불편함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46개의 ‘方旨’ 내용을 새롭게 增補한데 있다. 조선에서 증보한 46개의 ‘方旨’ 내용에는 약 393개의 처방이 수록되었는데 각 처방의 이름이 지어지게 된 유래, 처방을 구성하는 개별약물의 효능, 처방을 사용하여 치료한 경험담, 처방을 응용하게 된 의학이론 등이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다. 『만병회춘』이 脈訣 病論 治法 方藥의 원칙에 따라 각각의 질병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놓은 책이지만 다분히 先賢들의 經驗에 의한 ‘特效方’ 위주의 설명이 많았고, 따라서 각 處方의 立方原理나 구체적인 적응증상을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특효방에 집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폐해가 생기게 되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만병회춘』에서 이러한 부족한 점을 직시하였고 각 方劑의 立方原理, 方劑中 藥物의 配伍意義, 각 藥物의 升降浮沈에 따른 效能 등을 46개의 ‘方旨’ 내용을 통해 증보함으로써 기존 『만병회춘』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이외에도 공정현의 『만병회춘』에서 處方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朝鮮醫師들의 臨床經驗을 結合하여 조선의 질병상황에 맞도록 새롭게 변경하였다. 즉 동일한 方劑에서 君藥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으며, 각각의 藥物用量이 조선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되기도 하였고, 또 方劑의 構成 藥物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약물들을 추가하여 보충하기도 하였다.

‘김석주간본’은 위에 나온 ‘김육간본’보다 약 20년 정도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앞 시대에 조선에서 나온 『증보만병회춘』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壽世保元』, 『百代醫宗』, 『醫林撮要』, 『醫學正傳』 등에 나오는 처방 중에서 실제로 조선에서 많이 사용된 ‘他方要藥’을 첨가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다. ‘他方要藥’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수세보원』에서 87개 처방, 『백대의중』에서 44개 처방, 『의림촬요』에서 6개 처방, 『의학정전』에서 2개 처방, 『고금의감』에서 1개 처방 등 총 140개의 새로운 처방이 보완되었다. 이것은 앞의 ‘김육간본’에서 오곤의 『의방고』 내용을 증보한 것과는 또 다른 것으로, 조선에서 『만병회춘』을 1차로 증보하여 간행한 이후에 축적된 수십년 동안의 임상경험을 또 다시 정리하고 편집하여 간행한 것이다. 따라서 총 140여개의 증보된 처방 대부분이 1차 增補時에 사용되지 않았던 涂紳의 『百代醫宗』, 龔廷賢의 『壽世保元』, 楊禮壽의 『醫林撮要』 등에서 추가로 보충되었다. ‘김석주간본’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양예수의 『의림촬요』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는 점이다. 비록 많은 분량은 아니지만 총 6회에 걸쳐서 『의림촬요』의 처방내용이 인용되었는데 ‘嘔吐門’에 나오는 黃連六一湯, ‘鼓脹門’의 淸中導濕湯, ‘水腫門’의 導水茯苓湯 補中行濕湯, ‘補益門’의 參朮調中湯, ‘眼目門’의 東垣瀉熱黃連湯 등이다. 따라서 당시 조선의 의사들이 『의림촬요』의 처방 중에서 위에 나오는 처방들을 실제 임상에서 많이 사용하였으며, 또 그와 같은 축적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만병회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새롭게 『증보만병회춘』을 탄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조선에서 『증보만병회춘』이 간행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혹자는 그 당시에 중국에서 유명하였던 공정현의 『만병회춘』과 오곤의 『의방고』의 내용을 편집하여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지도 모른다.

김두중은 그의 저서 『韓國醫學史』에서 조선시대를 분류하면서 燕山君에서 中宗 仁宗 明宗 宣祖까지의 시기(1495-1608)를 ‘朝鮮의 前期醫學’으로 명명하고, 이 시기 조선의학의 특징을 조선 초기에 발달하였던 우리 固有醫學과 鄉藥에 대한 研究가 明醫學의 수입과 中國의 醫方書들이 간행되어 사용되면서 쇠퇴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⁵⁶⁾ 하지만 김두중의 의견처럼 외래의 지식인 明醫學이 발전됨에 따라 우리 고유의학과 향약에 대한 연구가 쇠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시각은 얼핏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나 다른 한편으로는 韓國醫學史를 왜곡시킨 측면이 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中國의 醫學書籍들이 많이 출간되면 될수록 그만큼 우리의 의학수준이 높았으며, 이러한 높은 의학수준을 바탕으로 중국서의 특징을 잘 이해하였고 우리 실정에 맞게 재해석하여 사용하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까?

실제로 앞에서 진행한 연구내용을 통해서 조선에서 간행된 ‘김육간본’과 ‘김석주간본’이 공정현의 『만병회춘』과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면은 中國의 方劑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사들의 임상경험을 결합하여 조선의 질병상황에 맞도록 새롭게 변경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方劑에서 君藥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며, 각각의 藥物用量이 조선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되기도 하고, 또 方劑의 構成藥物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약물들을 추가하여 보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선의사들의 노력은 이후에 출간된 조선의서들에서도 그 특징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조선후기에 편찬된 『醫林撮要續集』 『東醫寶鑑』 『醫林撮要(13권본)』 『濟衆新編』 『醫宗損益』 등에도 위와 같은 조선의사들의 실증적인 면모가 잘 반영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위와 같은 1차, 2차의 편찬과정을 통해서 『증보만병회춘』이 간행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조선의학의 수준이 기존의 中國醫書를 그대로 들여와서 學習하고 再刊行한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중국의학의 단점을 꿰뚫어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朝鮮의 醫學體系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조선의학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조선의사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임상에서의 實證的인 治療經驗을 바탕으로 朝鮮後期の 韓醫學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III. 結論

이상으로 朝鮮에서 새롭게 출현한 『增補萬病回春』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56) 김두중, 『韓國醫學史』, 탐구당, 서울, 1981, pp.261-264.

1. 조선에서 『萬病回春』의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을 보완하여 『增補萬病回春』을 刊行하였다. 그리고 이 『增補萬病回春』은 현재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정현의 『萬病回春』과는 별개의 새로운 朝鮮醫書이다.

2. 조선에서 편찬된 대표적인 의학서적인 『醫林撮要續集』, 『東醫寶鑑』, 『濟衆新編』 등에 인용되어 있는 『만병회춘』의 내용도 실상은 공정현의 『만병회춘』이 아니라, 조선에서 새롭게 증보하여 간행한 『증보만병회춘』을 참고로 하고 있다.

3. 현재까지 확인된 『增補萬病回春』에는 1656년에 金堉가 刊行한 것과, 1679년에 金錫胄가 刊行한 것이 있다.

4. ‘김육刊本’은 공정현의 『萬病回春』이 詳略이 不同하여 당시 朝鮮에서 議藥廳이나 侍藥廳을 설치하여 참고할 때에 불편함이 있었으므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46개의 ‘方旨’ 내용을 增補하여 새롭게 편찬한 서적이다. 이외에도 공정현의 『萬病回春』에 나오는 處方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朝鮮醫師들의 臨床經驗을 結合하여 조선의 질병상황에 맞도록 새롭게 변경하였다. 즉 동일한 方劑에서 君藥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으며, 각각의 藥物用量이 조선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되기도 하고, 또 方劑의 構成藥物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약물들을 추가하여 보충하기도 하였다.

5. ‘김석주刊本’은 앞 시대에 조선에서 나온 『增補萬病回春』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壽世保元』, 『百代醫宗』, 『醫林撮要』, 『醫學正傳』 등에 나오는 處方 中에서 실제로 조선에서 많이 사용된 ‘他方要藥’을 추가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게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다. ‘他方要藥’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壽世保元』에서 87개 처방, 『百代醫宗』에서 44개 처방, 『醫林撮要』에서 6개 처방, 『醫學正傳』에서 2개 처방, 『古今醫鑑』에서 1개 처방 등 총 140개의 새로운 처방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앞의 ‘김육刊本’에서 46개의 ‘方旨’ 내용을 增補한 것과는 또 다른 것으로, 朝鮮에서 『萬病回春』을 1차로 增補하여 刊行한 이후에 축적된 수십년 동안의 臨床經驗을 또 다시 정리하고 편집하여 간행한 것이다.

6. 조선시대에 1차, 2차의 편찬과정을 통해서 『增補萬病回春』이 刊行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朝鮮醫學의 수준이 기존의 中國醫書를 그대로 들여와서 학습하고 再刊行한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중국의서의 단점을 꿰뚫어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朝鮮의 醫學體系로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당시 조선의 학이 중국과 견줄 정도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높아진 의학수준에서 비롯된 자신감을 기반으로 『萬病回春』에 대한 增補作業이 여러 차례에 걸

쳐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작업의 결과로 조선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增補萬病回春』이 出現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조선의학자들의 노력은 이후에 출간된 조선의 다른 의학서에서도 그 특징이 그대로 반영되었는데, 조선후기에 간행된 『醫林撮要續集』 『東醫寶鑑』 『醫林撮要』 『濟衆新編』 『醫宗損益』에서도 조선의가들은 지속적으로 중국 의서의 내용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재구성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그동안 조선에서 간행된 새로운 의학서임에도 불구하고 원작의 출처가 중국이라는 이유로 무심코 간과했던 ‘朝鮮에서 刊行된 中國醫方書’의 재편과 이러한 增補刊行 과정이 의미하는 신지식의 도입과 용해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들이 한국한의학의 영역을 한 단계 더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參考文獻]

論文類

- 김남일, 우리나라 傳統醫藥技術의 中國醫學 輸入後 土着化에 대한 研究, 한국의사학회지 16권 1호, 2003.
- 김남일, 「醫案이란 무엇인가?」, 『月刊醫林』 309호, 醫林社, 2004.
- 김남일, 『韓國醫學史에서의 醫案研究의 必要性和 意義』, 제6회 한국의사학술대회 자료집, 2005.
- 강연석, 『鄉藥集成方』의 鄉藥醫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6.
- 강순애, 새로 발견된 내의원자본 연해두창집요의 연구, 서지학연구, 서지학회, 2000.
- 김홍균, 「醫林撮要解題」, 『Digital 醫林撮要』, 한국한의학연구원, 2004.
- 김홍균, 「醫林撮要」의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0.
- 안상우, 『醫方類聚』에 대한 의사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0.
- 안상우, 「醫業의 대명사, 萬病回春」, [고의서산책 239], 민족의학신문.
- 안상우, 「太醫를 길러낸 龔雲林의 晩年作, 濟世全書」, [고의서산책 202], 민족의학신문.
- 양영준, 『萬病回春』이 『東醫寶鑑』에 끼친 영향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8.
- 양영준·안상우, 『萬病回春』醫案속에 보이는 朝夕補法에 관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18권, 2005.
- 정순덕, 許浚의 『診解救急方』에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4.
- 차웅석, 李梴 醫學思想의 學術系統 및 特徵에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1.
- 천혜봉, 潛谷 金堉의 編·著書와 活字印刷(『潛谷遺稿』完譯·完刊 기념 학술회의), 민족문화추진회, 2001.
- 함정식, 『衛生寶鑑』의안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5.
- 俞雪如, 「醫林壯元龔廷賢與日本漢方醫學」, 『上海中醫藥雜誌』, 1991년 제10기
- 李琳榮, 「淺析龔廷賢萬病回春辨證論治的特點」, 『山西中醫學院學報』, 2005년 6권

王福嵐, 「萬病回春中風證治探微」, 『山西職工醫學院學報』, 2004년 5월 제14권
萬少菊, 「醫林壯元龔廷賢」, 『江西中醫藥雜誌』, 2001년 6월 제32권

書籍類

李世華 主編, 『龔廷賢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龔廷賢, 『萬病回春』, 人民衛生出版社, 1984.
龔廷賢, 『壽世保元』,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傅景華 主編, 珍本醫籍叢刊『種杏仙方·魯府禁方』, 中醫古籍出版社, 1991.
涂紳, 中醫古籍孤本大全『百代醫宗』, 中醫古籍出版社, 1993.
김남일 맹웅재 外, 『강좌 중국의학사』, 大成醫學社, 2006.
김남일 맹웅재 外, 『韓醫學通史』, 대성의학사, 2006.
陳大舜 外 譯, 김남일 맹웅재 外 譯, 『各家學說』, 대성의학사, 2001.
김두중, 『韓國醫學史』, 探求堂, 1981.
楊禮壽 原著, 조현영 外 共譯, 國譯韓醫學大系『醫林撮要』, 海東醫學社, 1999.
三木榮, 『朝鮮醫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73.
崔秀漢, 『朝鮮醫籍通考』,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何時希, 『何氏八百年醫學』, 學林出版社, 1987.
郭君雙 主編, 『吳崑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胡國臣 主編, 『薛立齊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천혜봉, 『韓國書誌學』, 민음사, 1991.
천혜봉, 『고인쇄』, 대원사, 1989.
최강현, 國譯『乙丙朝天錄』, 國立中央圖書館, 2005.

데이터베이스類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jistik.kiom.re.kr)
민족문화추진회, 민족문화추진회 홈페이지 원문서비스 (www.minchu.or.kr)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홈페이지 (sjw.history.go.kr)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서비스 (www.nl.go.kr)
한국한의학연구원, CD-ROM 『Digital 醫林撮要』, 누리미디어, 대전, 2004년
한국한의학연구원, CD-ROM 『Digital 濟衆新編』, 누리미디어, 대전, 2003년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 CD』, 上海人民出版社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1999년